

KIA 훈련 역효과? 타선 부진에 줄부상

막강 마운드 퍼펙트투 불구
무사 3루 득점기회 헛 손질
日 소프트뱅크 평가전 0대0
연일 강훈에 부상자 속출
선수단 분위기 침체 '비상'



23일 일본 미야자키 아이비스타디움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1군과의 연습경기에서 KIA 신종길(1)이 1회초 첫 타자로 나와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의 투수조와 야수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KIA가 23일 일본 미야자키 아이비스타디움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1군과의 연습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KIA는 소프트뱅크 타선을 단 2개의 안타로 묶으며 막강 마운드 위력을 과시했지만 결승타가 불발에 그치면서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다. 이로써 홈백전을 제외한 KIA의 4차례 연습경기 전적은 1승1무2패가 됐다.

순항을 이어가는 마운드에 비해 타선의 걸음은 여전히 더디다.

이날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외야수 신종길(1)이 3루타 2개를 포함 4타수 3안타로 맹타를 휘둘렀지만 홈을 밟는데 실패했다.

KIA는 이날 경기에서 6차례 선두타자가 출루했지만 점수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특히 4회초 신종길(1)이 3루타를 때리며 무사 3루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없이 이닝이 종료됐다.

반면 두 번째 실전 피칭에 나선 트레비스가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워 2이닝을 무안타로 막으며 2개의 삼진을 뽑아낸 것을 시작으로 박정배, 광정철, 손영민 등 투수들은 위력적인 구위를 선보였다.

'투고타저'의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KIA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다.

KIA는 이번 캠프에서 초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타자들은 하루 1000개 이상의 배팅을 소화하고 있고 18일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가 끝난 뒤에는 야간훈련까지 가졌다. 이날 3-2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경기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이다.

23일 소프트뱅크와의 경기 끝난 뒤에도 실내연습장에서 훈련을 한 뒤에는 짐을 꾸

릴 수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강훈으로 부상병들이 속출하면서 선수단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다.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왔던 최희섭에 이어 김원섭·나지완·안치홍 등 주력선수들이 줄줄이 귀국길에 올랐고, 이범호도 허리통증으로 이날 친정팀 소프트뱅크와의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백전노장 이종범은 종아리 근육통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크고작은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훈련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24일 가고시마로 이동해 롯데와의 연습경기 치르게 되는 KIA는 귀국후에는 12일 시범경기에서 앞서 국내에서 삼성, SK, 넥센과의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다. 시즌 개막까지 쉴 틈없는 일정이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달 4일 캠프철수때까지는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조범현 감독이 얼마나 타자들의 마음과 실력을 얻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KIA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성민·김연경·양효진 이들이 한국배구 대표 얼굴

FIVB '히어로' 선정



〈문성민〉 〈김연경〉 〈양효진〉

올해 국내 프로배구계에 데뷔해 '거포'의 위력을 보인 문성민(25·현대캐피탈)과 일본에서 맹활약 중인 김연경(23·JT마블러스), 국가대표 센터 양효진(23·현대건설)이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얼굴로 선정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세 선수를 국제배구연맹(FIVB)이 주관하는 '히어로 캠페인'의 한국 대표 스타로 뽑았다고 23일 밝혔다. FIVB는 배구와 비치발리볼의 인기를 높일 목적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스타를 '영웅(히어로)'으로 내세워 각종 국제대회와 사업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독일과 터키 리그를 거친 문성민은 2007년 월드컵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스타 공격수로 자리 잡았고, 김연경은 한국 여자배구 최고의 거포라는 찬사를 받으며 일본 여자프로배구 진출 후에도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양효진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에 참가하면서 국가대표 주전으로 입지를 굳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의 스타리 클레이트(남)와 러시아의 가모바 예카테리나(여) 등이 '히어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FIVB는 각국에서 자료를 취합해 편성하고 나서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V리그 선두 대한항공의 '엄살'

"방심하다 우승 놓칠라" 삼성과 격돌 앞두고 총력 태세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리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22일 인천경기에서 상무신협을 3-0으로 제압하고 첫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지만, 신영철(47) 대한항공 감독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이날까지 19승4패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2위 현대캐피탈(16승7패)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7경기에서 4승만 더하면 우승할 수 있다.

매직넘버는 아직 '5'지만, 동물을 이루더라도 점수득실률에서 워낙 크게 앞서 있어 사실상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올 시즌 82.6%의 승률로 고공비행을 해 온 만큼 이번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우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감독은 우승이 확정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위 현대캐피탈의 김호철(56) 감독이 "1위 탈환보다는 남은 시즌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오히려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마지막까지 고삐를 죄는 배경에는 '반드시 1위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대한항공은 2006~2007시즌부터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매번 플레이오프에서 고배를 마셔 '만년 3위'에 머물렀다. 네 차례 포스트시즌에서 9패를 당하는 동안 승리는 1번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규리그에서 분전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삼성화재나 현대캐피탈을 만나 '고양이 앞의 쥐'가 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정상 도전에 나서려면 플레이오프 없이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해야 한다는 것이 신 감독의 계산이다.

신 감독은 "우리가 2위로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쫓기는 만큼 챔피언결정전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어떻게든 정규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나 현대캐피탈은 결승 경험이 많지만 우리는 없다. 큰 경기 경험이 많은 만큼 플레이오프에 가면 상대가 한 수 위에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22일 경기에서도 대한항공은 초반 기세를 잡자 외국인 공격수 예반 페이텍(미국)을 빼고 센터 이영택도 투입하지 않는 등 벌써 24일 삼성화재와의 경기 준비에 나섰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10000000 관중시대 온다

KBO 보고서... 10구단 창단·구장 증축 등 인프라 개선편 가능

프로야구 '1천만 관중'시대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야구발전실 행위원회가 23일 한국 프로야구 1천만 관중시대를 예측하는 관중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10구단까지 창단되고 야구장 인프라 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동원가능한 관중은 연간 약 131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0만 관중 돌파를 위해서는 좌석 점유율이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70%가

지 증가하고, 2만5000석 이상의 야구장인프라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프로야구 평균 좌석 점유율은 55.18%에 그쳤다. 또 무등경기장을 비롯해 대구와 대전, 목동 등의 수용 인원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구장 증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위원회는 프로야구단이 9개일 경우 ▲소형 구장 증축 시 830만 명 ▲좌석 점유율 70% 돌파시 798만 명 ▲투 조건 다 만족할 시 1천54만 명의 관중이 들 것이라 예상했다.

또 10번째 구단까지 창단될 경우에는 ▲소형 구장 증축 시 1034만 명 ▲좌석 점유율 70% 돌파시 1024만 명 ▲투 조건 다 만족할 시 1311만 명까지 관중 동원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또 현 야구인프라체계에서 총 532경기 동안 모든 구장이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최대 관중 수는 연간 1050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예측 어려운 변수를 제외한 현재의 수치만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올 시즌에는 600만 명, 2022년에는 7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6세 여고생 최지희 역대 최연소 4강행

한국 테니스선수권대회

최지희(16·중앙여고)가 역대 최연소로 제66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여자단식 4강전에 진출했다.

올해 2학년으로 올라가는 최지희는 23일 제주 서귀포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여자단식 8강전에서 정윤영(21·NH농협)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한국선수권 여자단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수가 4강에 오른 것은 최지희가 처음이다. 최지희는 신정윤(명지대)을 2-0으로 물리친 류미(강원도청)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http://kjmarathon.co.kr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1. 3. 1 | 화 | 08:30~16:00
풀코스 출발 09:00

|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남평교
| 대회종목 | 5km, 하프코스, 풀코스

|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 전남육상경기연맹
| 후 원 | 광주지방법원청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나주경찰서
| 협 찬 | KJB 광주은행 KB금융그룹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TrekSta 조신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주요광원자력본부 KYOBO 교보생명

전남대학교병원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신대학교병원

| 대회문의 | 062-220-054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광주봄꽃박람회
Gwangju Spring Flower Expo 2011

3.25 (토) ▶ 4.3 (토)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야외일원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대형한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봄꽃의 향연!!